

디모데에게 전달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이사야 40:27-31, 디모데후서 2:1-7

박범서 목사님

* 사40:27-31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멍청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 딤후2:1-7 내 아들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염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나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 형상기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셔서 지, 정,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존재로 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 마귀자녀로, 우상숭배하며 정신과 육신과 내세와 후대의 문제 가운데 멸망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근본문제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이제 평생까지 살리는 증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를 통해 응답받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증인이 되어 강단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가져야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다고 했다. 그 내용은 사람들이 나중심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중심으로 돈을 사랑하고, 성공중심으로 자랑하고 교만한 것이라고 했다. 이 문제는 사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었던 문제이고 말세에 나타나리라 한 문제고, 지금도 똑같이 있는 문제다. 선진국에 지식인들이 있지만 영적인 힘은 없다. 학문은 있지만 실제 살릴 수 없다. 그래서 지구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데 날이 갈수록 정신병자가 많아지고, 정신병동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살리는 답은 복음밖에 없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 떠난 영적문제는 행위로는 안 된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절에 그분께서 사랑을 폐하셨다고 했다. 복음은 빛이다. 어둠에서 살아가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복음은 생명이니.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복음은 길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길이 복음이다. 나는 누구인가? 11절에 나는 이 복음을 위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했다. 한 마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런데 나는 왜 응답이 없고 힘이 없을까? 여기에서 철저히 절망해야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 언약적 한을 가지면 응답이 온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도 “내 아들이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 강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면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할까?

1.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1) 영원한 기업이란? 기업은 영어로 Inheritance이고, 사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현상이 무엇인가? 이스라엘과 237나라와 5000종족의 후대가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와의 기업이니. 우리가 응답받고 정복해야 할 현장이다. 그러려면 힘이 필요하다. 어떻게 그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메시지에서 Heavenly Power, Thronely Power, Eternally Power를 말하는데, 이 힘을 어떻게 내 것으로 끌어 쓸 수 있을까? 내가 누

구인지를 알아야 힘을 얻을 이유가 생긴다.

(2) 나는 병사라고 했다. 군대 가면 군복 주고, 전투화 주고, 총 주고 다 준다. 싸워야 되니까 그렇다. 내가 전에 큰 힘을 얻었던 적이 있다. ‘이게 하나님 주신 힘이구나’ 생각이 들 만큼 힘이 되었다. 그런 힘이 어디서 왔을까? 솔직하게 저는 대영고등학교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과정, 가정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왔다. 기도를 하다보니 마음이 생긴 건지, 복음화를 하고 싶어서 기도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제 마음에 담기는 일이 있었다. 물론 당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 복음화를 두고 기도했지만 저는 진심이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지만 진짜 진도에 안달 난 사람은 많지 않다. 저는 밤마다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존 낙스의 기도를 따라했다. 내게 대영고등학교를 주시든가 죽음을 주시든가 해달라고 기도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후 정말 교직원인 되든지 졸업을 안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저는 대영고등학교 복음화하는 흉내만 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제 마음만 보시고 힘을 주시더라. 제가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이 바뀌어있었다. 저는 무대 공포증이 심한데 대영고 복음화하려고 기도부터 시작하게 되고, 친구들을 모아 기도모임을 만들고 제가 기도모임을 인도했다.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도전했는데 하게 되었다. 저는 못 하는 사람인데 대영고 복음화를 위한 기도회가 정말 하고 싶어서 억지로 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힘이 생긴다. 나는 부족함에 내가 학원복음화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진 한계를 많이 넘어서게 되었다. 이게 내가 힘을 가진 이유다. 나중에는 선생님을 넘어설 만큼 변화되고 믿음이 있는 친구들은 내가 같은 학년인데도 저를 인정하고 따라왔다. 하나님 자녀가 자기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데 그게 어디서 오는 말이다. 제가 집에서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저를 넘어서는 힘이 생겼다. 오늘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고난도 받을 수 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염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나에게 매이지 않고 나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게 지금도 똑같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이스라엘 237, 5000종족의 후대인데 이걸 살리는 게 나의 소원이 되면 된다.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면 된다. ‘공부 잘하게, 돈 많이 벌게, 성공하게 힘을 주세요’하면 하나님도 부르심이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237, 5000종족 후대 살릴 수 있도록 내가 부르심을 받은 병사라는 것이 마음에 담겨야 한다. 저는 힘을 많이 얻었다가, 20년간 방황하며 못 일어나다가 지금도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다시 이렇게 시작하려고 한다.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고등학교 때처럼 서울대복음화를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대 선배에게 전도할 생각하지 말고, 내 열심히 하지 말고 복음 누리라는 담사역을 받았었다. 이후 저는 ‘서울대복음화가 내 야망이면 전도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모든 힘 다 잃었다. 서울대복음화를 포기하고 나니까 제게 복음 누릴 이유가 많이 사라졌었다. 복음 누리는 단계가 있고 전도하는 단계가 있는 게 아니다. 안 되더라도 지금 사명을 붙잡아야 지금 내가 복음 누릴 이유가 발견된다. 이게 선후관계가 없고 엮여있다. 내가 병사임을 알 때,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이유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신다.

(3) 나를 살리는 힘 (24). 사명은 맞는데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며, 시공간이 초월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과 몸을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방법은 두 가지이다.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고, 모든 호흡을 능력으로 바꾸는 것이다. 기쁨이나 슬픔 속에 있어도 언제나 기도하면 된다. 외로움과 빈곤 속에 있어도 언제나 기도하면 된다. 응답과 꺾박 속에 있어도 언제나 기도하면 된다. 영광과 누명 속에 있어도 언제나 기도하면 된다. 행복과 절망 속에서 나이 들어 혼자 있어도 시작과 죽음 앞에 언제나 기도하면 된다. 기도방법을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모르면 대충 흉내만내도 된다. 사명을 가진 병사가 기도하면 먼저 나를 살리는 힘을 주신다.

(4) 나를 살리는 힘을 누리면 어떤 결과가 올까? 현장에 문제, 갈등,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닌데 나한테는 문제가 아니고, 갈등이 아니고, 위기가 아니다. 답이 있고, 흐름이 보이고, 그 다음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 현장에 답을 전달하는 재앙 막는 자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니까 오히려 더 잘 났다고 생각한다.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힘 있으면 누구나 이렇게 된다.

2.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1) 영원한 작품이 될까? 답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인 램턴트를 통해 그 현장을 성경에서도 회복하셨고, 지금도 회복하신다. 그래서 램턴트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즉, 하나님은 램턴트로 부르신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어떻게 무능한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을까?

(2) 나는 경기하는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했다.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다. 내가 나를 작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제게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

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었다. 이전에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후에는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걸 했다. 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읽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했다. 우상을 버리라고 해서 버렸다. 그중에는 제가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었고 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다. 저는 특히 사람에게 잘못된 일을 찾아가서 사과하라고 한 말씀을 실천하는 게 쑥스러워서 힘들었다. 해야겠다고 다짐은 했지만 계속 못 했다. 그러다가 몇 주 지나서 억지로 찾아가서 했다. 제 나름대로 이게 굉장히 저를 넘어서는 시간이었다. 또 제 성질대로 안 되면 짜증내다가도 말씀을 따라하려고 하니까 양보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를 넘어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겼다. 제가 어렸을 때 꼭 실천하려고 했던 말씀이 우상숭배를 안하려는 것이었다. 반면에 저희 아버지는 자식들이 조상만 잘 섬기기를 원하셨다. 중학교 1학년 때 저를 데리고 성묘를 갔다. 성묘 가서 아버지가 절을 시키는데 안 하고 싶지만 압박감에 결국 절을 했다. 갔다와서 제가 말씀 못 따라가고 타협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제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부인 안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아버지가 또 성묘를 데리고 가셨을 때는 타협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하도 강하게 압박을 하니깐 그냥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도망쳤다. 혼자 도망치면서 교회 친구들이 생각났다.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고 이런 문제를 겪어야 하나' 생각했다. 한참 뒤에 저를 부모님이 찾아다니시고 이후에는 잘하라고는 안 했다. 고등학교 가고는 공부를 핑계로 성묘 안했다. 저는 그것 때문에 힘을 얻었다. 왜 그렇게 지독하게 신앙생활 했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힘을 얻었던 것 같다. 지금도 똑같다. 말씀을 따라가는 경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힘을 주신다.

(3) 세상 바꾸는 힘 (25).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으로 응답받기 위해 세상을 바꾸는 힘이 필요하다. 그런데 세상을 바꾸는 힘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보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세상 바꾸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면 누구에게 25 보좌의 힘을 주실까? 집중하는 사람에게 보좌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무엇에 집중할까? 모든 악령을 파하는 오직 그리스도께 제한적 집중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에 선택적 집중을 하고,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에 원니스 집중을 할 때 하나님은 세상 바꾸는 힘을 주신다.

(4) 세상 바꾸는 힘을 누리면 어떤 결과가 올까? 아무도 없는 Nobody의 현상, 아무 것도 없는 Nothing의 현상에서 부족한 나를 통해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Everything의 응답, 모든 것이 회복되는 Everything의 응답이 온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다. 내가 말씀 따라가면서 '이게 될까' 기도했던 것들이 실제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을 대단한 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선 내가 부딪히는 작은 부분에서 시작하시기 바란다.

3.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

(1) 영원한 유산이란? 영원한 기업이 '물려받은 것'이라고 했지만 '유산'도 사전적으로는 Legacy, '물려받은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맥락을 볼 때 '우리가 물려줄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영원한 유산이 뭐냐고 했을 때, 땅끝이 영원한 유산이다. 땅끝이 어디일까? 이것도 이스라엘과 237, 5000종족이다. 영원한 유산은 땅끝, 즉, 이스라엘과 237, 5000종족 살릴 시스템을 유산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힘이 필요한데 어떻게 그 힘을 누릴 수 있을까?

(2)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농부는 수고하는 사람이다. 어떤 수고를 할까? 매일 곡식을 돌봐야 한다. 영적인 규모를 의미한다. 내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스템이 있으면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힘 얻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바라보는 영적 인 규모가 있고 영적인 시스템이 있다. 저는 다락방 하기 전에도 아침에 눈 뜨면서 하는 기도, 등교하면서 하는 기도, 하교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었다. 그중에 제일 핵심이 아침에 QT하는 시간과 하교하며 교회 들르는 시간이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위로도 받고 상처도 털어낼 수 있었다. 요즘에는 류목사님께서 24시 기도를 강조하시니까 야에 기도시간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수고하는 농부처럼 정시기도 시간을 먼저 만드시면 좋겠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복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힘을 주신다. 말이 수고지 우리가 어떻게 수고할 수 있나. 복음이 나에게 소중해지면 된다. 농부가 곡식이 소중하면 당연히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다. 복음이 내게 소중해지면 되어진다.

(3) 시대 바꾸는 힘 (영원). 우리에게 시대 바꾸는 힘을 약속하셨다. 성경과 교회사에 응답받은 램넛트들은 정말로 시대를 바꿨다.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중세암흑시대 유럽 지형을 바꿨다. 링컨 대통령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이니라하신 말씀 붙잡고 시대의 노예문화를 바꿨다. 우리에게도 이 시대 바꾸는 힘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영원한 보좌의

배경으로만 된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기도 속에서 능력을 누리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준비를 확인하며 찾고, 기도 속에서 그것을 실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게 있다. 그걸 기도 속에서 찾으면 되어진다.

(4) 시대 바꾸는 힘을 누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시대 바꾸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CVDIP를 주신다. 하나님과 나의 이면계약이 생긴다. 그 내용은 나의 업이 세 가지 틀이 되는 것이다. 나의 업으로 램넛트를 서밋으로 키우고, 나의 업으로 기도를 통해 치유하고, 나의 업으로 다민족을 살리는 CVDIP를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나를 통해 성취하신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세 가지 장벽을 넘어서라.

① 첫 번째는 Nobody의 장벽이다. Nobody의 장벽은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누가 나를 잘 끌어주면 나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사람 없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좋은 분이면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라. 저도 제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다른 교회 친구네 집을 부르워한 적도 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었다. 학교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봤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기도의 줄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을 24 나를 살리는 힘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절대불가능 속에 나의 그릇을 준비해서서 절대가능이 되게 하신다.

② 두 번째는 무능력의 장벽이다. 저는 학교 다니며 제가 수학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부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친구들 보니까 그중에는 차원이 다른 천재들이 있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이와 능력은 비슷했는데 센스, 눈치, 대인기술들의 수준이 저와 차원이 다른 사람들도 많았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품까지 뛰어난서 '하나님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완벽할 수 있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보니까 낙심되었다. 이게 무능력의 장벽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 무능한 나를 인정하고 부족하니까 낮은 자리로 가라. 내가 서밋은 못 되니까 영적서밋에 도전하라. 저는 타고나기를 못나게 태어났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의 영적상태를 최정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의 무능과 상관없이 25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세상 바꾸는 힘이다. 제가 1등하고 남들보다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닌데 나의 현장에서 작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나와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것이 내가 여호와와 작품이 되는 것이다.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을 그만두고 국회에 몇 번 다시 갔었는데, 모시던 의원님을 다시 만나니까 의원님이 제게 힘들다며 속 이야기를 하셨다.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셨다. 지금도 제가 그분의 인품이나 실력을 따라갈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부족한 나라도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면 나의 무능과 상관없이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③ 마지막 세 번째는 설침과 포기 장벽이다. 설치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포기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 다 내가 기준되어 똑같은 수준이다. 우리는 어떨 때는 세상이 쉬워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상이 너무 대단해 보이기도 한다. 둘 다 틀린 것이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것을 찾아보라. 나는 못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내가 발견하면 쉽고 되어진다. 이것이 시대 바꾸는 힘이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발견하면 된다.

이 모든 것을 언제, 어디서 하느냐. 지금, 여기서 하기 바란다. 제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었다고 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라 제 문제 속에서 얻은 것이다. 말씀을 실천하려고 보니까 제게 시간이 없었다. 그런데 뭐라도 교회 일 하고 싶어졌다. 교회 헌신할 시간이 없어서 그때는 잠을 줄여가며 헌신했는데, 피곤하니까 이어서 40장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요셉에게는 Heavenly Power가 꿈 해석으로, 다윗에게는 돌팔매질로 나타났는데 제게는 피곤하지 않은 힘으로 나타났었다. 3시간 밖에 못 자는데 교회 헌신을 하고서도 평상시와 똑같았다. 제가 이런 체험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 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힘이 제게 익숙해졌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내 업에 나타나면 된다. 이게 내 업에 적용된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다. 누구나 된다.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에서 병사로 사명을 가지고, 경기하는 자로 말씀을 붙잡고 농부처럼 영적 규모를 지속하시기 바란다. 나를 살리는 힘, 세상 바꾸는 힘, 시대 바꾸는 힘을 하나님은 주셔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의 응답을 주실 줄 믿는다. 그래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강단을 통해 언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말세시대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강해서 장벽을 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